지리산의 모든 것을 한눈에

1. 목적 및 배경

○ 탐방안내소의 내부 전시물 해설과 직간접적인 국립공원 체험활동을 제공함으로서 국립공원에 대한 바람직한 이해와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하고자 한다.

2. 프로그램 운영 계획

○ 프로그램 분야 : 전시물 해설

○ 프로그램명 : 지리산의 모든 것을 한눈에

○ 대　　상 : 일반성인 20명내외

○ 운영기간 : 연중, 10:00~17:00(매주 월요일 휴관)

○ 운영형태 : 당일형, 40분/회

○ 장　　소 : 탐방안내소 내부

○ 주요내용 : 국립공원의 이해, 지리산의 야생 동·식물과 문화자원 그리고 복원이야기 등

○ 소요예산 : 100만원

○ 참 가 비 : 무료

3. 홍보계획

○ 참가자 모집 : 전광판 송출, 배너 등 제작하여 탐방안내소 입구에 게시

○ 참가자 접수 방법 : 현장접수, 전화문의(061-780-7700)

○ 사업성과 홍보 : 보도자료 제공, SNS 홍보 등

4. 평가계획

○ 만족도 조사 : 프로그램 종료 후 만족도 조사

○ 효과성 조사 : 프로그램 참여자 만족도 조사를 통한 피드백

첨부

1. 프로그램 개요 및 시나리오

2. 현황사진

#첨부 1. 프로그램 개요 및 시나리오

지리산의 모든 것을 한눈에

지리산의 모든 것을 한눈에 (당일)



운영장소 화엄탐방안내소 (전라남도 구례군 마산면 화엄사로 372)
참가대상 제한없음
운영시간 40분
참가비용 무료
신청방법 현장예약, 전화문의 (061-780-7700)

일반 프로그램

국립공원과 지리산이야기	**보호지역 국립공원 이야기** 생태우수지역이자 보호지역인 국립공원의 의미와 가치를 알아보고 우리나라 22개의 국립공원의 지정현황을 살펴본다. 또한, 백두대간의 끝자락에 우뚝 솟아 있는 국립공원1호인 지리산국립공원의 지정배경과 역할을 조명해 보고 자연환경의 특성과 인문 지리적 자원을 알아보는 시간이다.
야생 동·식물 그리고 복원이야기	**지리산이 품은 다양한 생명 그리고 다시 자연으로** 다양한 생명의 보금자리인 지리산국립공원에 서식하는 다양한 야생동물과 식물 만나기를 통해 고유의 특성과 생명의 소중함을 생각해 보는 시간이다. 또한 노고단과 심원마을 이주사업과 복원현황을 통해 자연의 소중함과 바람직한 배려를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한다.
지리산과 함께하는 우리	**지리산과 함께 하는 우리** 퀴즈풀이와 내용피드백을 통해 지리산국립공원의 다양한 면모와 새로움을 담아보는 시간이다. 또한, 건강한 지리산국립공원을 지켜나가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과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져 볼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한다.

일반프로그램

지리산의 모든 것을 한눈에

활동장소	화엄탐방안내소 내부
소요시간	40분
참가대상	제한없음
참가인원	20명내외/해설사

활동목표	• 국립공원의 특성과 의미를 알 수 있다. • 지리산국립공원의 자연생태계와 자원현황을 알 수 있다.
준비물	• 카메라, 해설 교보재(지리산10경사진, 퀴즈내용), 심원마을 복원관련 사진 첩레이저포인터, 기념품, 응급처치키트 등
유의사항	• 프로그램 운영 시 발생 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한다. • 사전 참가자 분석으로 눈높이를 고려한 해설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단계	교육내용	교육시간
도입	• 인사 및 프로그램 소개 – 인사 및 서로 소통하기 – 탐방 시 유의사항 전달 및 안전교육	5분
전개	• 국립공원은 어떤 곳일까요? – 국립공원의 의미와 역할 – 우리나라의 국립공원 지정현황 • 지리산국립공원 소개 – 탐방안내소란? – 지리산국립공원 소개 – 동·식물 자원 – 깃대종_반달가슴곰과 히어리 – 지리산둘레길 이야기 – 문화유산_3대사찰과 문화재 이야기 • 다시 자연으로_아픔과 복원이야기 – 특별보호지역 노고단_탐방예약제 – 자연으로 돌아간 심원마을	27분
마무리	• 퀴즈 풀이 및 내용 피드백 • 프로그램 닫기_인사 및 마무리	8분

시나리오

인사 및 프로그램 소개

안녕하세요? 지리산전남사무소 자연환경해설사○○○입니다. 울긋불긋한 단풍이 물든 지리산국립공원을 찾아주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에서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 많았을 텐데 어떠신가요? 이곳은 지리산의 다양한 전시물과 정보를 받아 볼 수 있는 화엄탐방안내소입니다. 우리가 함께 할 프로그램은 “지리산의 모든 것을 한눈에”로 약 40분정도가 소요되며 주로 내부 전시물 해설과 직간접 체험활동으로 지리산을 알아보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격적인 활동 전에 혹시 몸이 불편하거나 약품이 필요한 분이 있으면 저에게 미리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몇 가지 약속하기로 해요. 박제나 표본 만지지 않기, 저보다 먼저 앞서 나가지 않기, 휴대전화는 매너모드로 돌려놓기, 다른 사람방해하지 않기, 계단 오르내릴 때 주의하기 등 지켜 줄 수 있겠죠?

국립공원 소개_우리나라의 국립공원

국립공원은 우리나라를 대표할 만한 자연생태계와 자연·문화 경관의 보전을 전제로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자 환경부장관이 지정,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보호지역입니다.

현재 국립공원은 국가관리 원칙에 따라 소관부서는 환경부이며, 산하기관인 국립공원공단이 전국 22개 국립공원 중 21개를 관리하고 있으며, 도서지역인 한라산국립공원 1개 공원만 지방 자치단체인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립공원은 전국 22개 국립공원은 유형에 따라 산악형(18개), 해상·해안형(3개), 사적형(1개) 공원으로 관리·운영되고 있습니다.
전 국토대비 국립공원의 면적은 4.0%(해상면적 제외)이며, 국립공원 면적 중 59.1%가 육상이며, 나머지가 해상 공원구역입니다.

국립공원에는 멸종위기종의 65%가 서식하고, 지정문화재 중 5.5%가 국립공원에 위치해 있으며, 국립공원을 찾는 탐방객수는 2019년 12월 기준 연간 약 4,300만명으로 국립공원은 생물종 다양성의 보고이며 생명의 보금자리이자 국민들에게는 쉼터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탐방안내소 소개

이 곳 화엄탐방안내소는 국립공원 최초의 탐방안내소로1995년 10월에 개소하였습니다. 탐방안내소는 자연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교육과

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이자 국립공원탐방에 앞서 산행정보와 탐방정보를 얻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국립공원공단에서는 좀 더 즐겁고 유익한 탐방을 할 수 있도록 각 국립공원마다 탐방안내소를 운영하고 있으니, 먼저 탐방안내소를 둘러본 후에 탐방을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지리산국립공원 소개

지리산국립공원은 우리나라 최초의 국립공원 제1호로 지정되었습니다. 또한, 국제적으로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으로부터 카테고리 2등급으로 인정을 받았을 만큼 가치가 높은 국립공원이기도 합니다.

지리산은 전남과 전북, 경남 등 3개도 5개시·군에 펼쳐져 있으며, 22개 국립공원 중 가장 넓은 면적(483.022㎢)의 산악형 국립공원입니다. 이중 지리산사무소가 56%, 북부사무소가 23%, 저희 전남사무소가 21%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넉넉한 지리산의 웅장하고 아늑한 산세는 영·호남의 지붕으로서 이 지역 사람들의 삶의 터전이며, 생명의 산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습니다. 지리산의 북쪽으로는 만수천-임천-엄천강-경호강-남강-낙동강이 이어지며, 남쪽으로는 섬진강이 흘러 생명수를 제공하고 있을 뿐 아니라, 천왕봉 바로 아래 위치하고 있는 천왕샘을 비롯하여 주능선 곳곳에서 끊임없이 샘물이 솟아나고 있습니다.

지리산은 예로부터 금강산, 한라산과 함께 삼신산의 하나로 민족적 숭앙을 받아 온 민족 신앙의 영지였습니다. 지리산은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데, 신라 5악 중 하나인 남악(南岳), 금강산, 한라산과 함께 방장산(方丈山), 멀리 백두산에서 백두대간을 따라 줄기가 흘러왔다하여 두류산(頭流山)이라 했고, 불복의 산, 적구의 산 등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지리산(智異山)의 이름 뜻을 살펴보자면 “아무리 어리석은 사람일지라도 이 산에 머물다 가면 지혜로운 사람으로 변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 오신 선생님들께서도 더 많은 지혜를 담아 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래봅니다.

먼저, 산봉우리와 계곡현황을 알아보겠습니다.
천왕봉, 반야봉, 노고단의 3대 주봉을 중심으로 1,500m 이상 되는 연하봉, 영신봉, 명선봉, 일출봉 등 16여개의 봉우리와 능선이 병풍처럼 펼쳐져 있습니다. 노고단부터 천왕봉을 잇는 주능선의 길이는 25.5km(60리), 둘레는320km(800리)로 종주산행을 하려면 최소 2박3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계곡으로는 지리산의 피아골계곡, 심원계곡, 달궁계곡 등 29개의 계곡이 있으며 전남권의 주요계곡으로 피아골계(약9.8km), 심원계곡(약6.8km), 문수계곡(3.8km)이 있습니다.

다음은 산행코스를 알아보겠습니다. 주요탐방로인 종주코스는 노고단~장터목~천왕봉이 있고 약 2박3일정도가 소요되며 거리는 25.5km입니다. 이곳 저희 관할 구역의 주요 탐방코스로는 화엄사코스인 화엄사~연기암~노고단대피소(7.0km), 노고단코스인 성삼재~노고단대피소~노고단(3.5km), 만복대코스는 성삼재~고리봉~만복대(5.4km)가 있는데 당일 산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요즘 가을 단풍을 보기 피아골코스가 있는데 직전마을~피아골대피소(km)를 추천 드립니다.

주요 공원시설물는 대피소가 있는데 대부분 주능선에 위치하고 있으며 산행시 안전을 위해 숙식을 할 수 있습니다. 노고단, 피아골, 연하천, 벽소령, 세석, 장터목, 로타리, 치밭목 등 8개가 있으며 인터넷 예약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지리산의 아름다움을 대표할 수 있는 지리산 10경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1957년 연하반이라는 구례의 산악단체가 환경정화 활동과 보호를 위해 수십 번 오르내리며 선정한 장소로, 3대가 덕을 쌓아야 볼 수 있는 천왕봉일출, 신선이 나올 것 같은 연하선경, 우리나라 3대계곡인 칠선계곡, 눈이 시린 벽소명월, 가을 붉은 단풍의 절정이 직전단풍, 반야낙조, 구름 가득한 노고단 운해, 고산지대의 봄의 향연 철쭉이 만발한 세석철쭉, 불일폭포, 지리산을 감돌아 남해에 이르는 섬진청류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자원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리산은 예부터 불교문화의 요람이라 할 만큼 많은 사찰과 암자들이 분포해 있는데 화엄사, 천은사, 연곡사, 쌍계사, 내원사, 대원사, 법계사, 실상사 등이 있습니다. 사찰은 문화자원이 잘 보호되고 있는데 국보7점과 보물 31점이 있습니다.(전남권역의 문화재_국보6점, 보물15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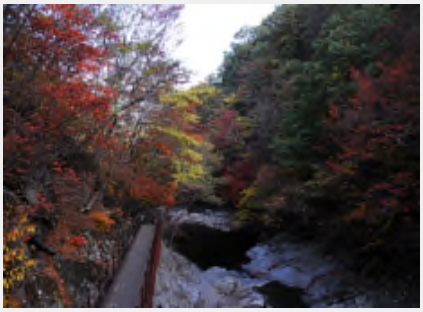
자연자원으로는 1500종의 식물과 5528종의 동물자원_포유류42종, 조류135종, 양서류132종, 파충류 14종, 어류 52종, 곤충 4538종, 기타(고등균류, 거미, 담수조류, 담수저서성대형 무척추류)734종 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리산국립공원을 알아 보셨는데 지리산은 생명의 산이자 어머니의 품처럼 많은 것을 보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지리산의 넉넉함과 풍요로움을 간직한 자연환경은 야생 동·식물과 함께 사람들의 생활 터전이자

뭇사람을 품어 왔습니다. 이는 화엄사, 천은사, 연곡사 등 많은 사찰과 소중한 역사문화자원과 더불어 많은 사상가와 예술인들의 영감을 자극하여 많은 예술작품과 인문학을 탄생시킬 수 있는 배양토가 되어 주었습니다.

지금까지 지리산을 알아 봤는데 다음 전시패널로 이동하며 동물과 식물을 만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식물 자원

지리산국립공원은 많은 생명들을 키워주는 생명의 보금자리입니다. 드넓은 면적만큼이나 다양한 야생 동·생물들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식물자원으로는 주목, 구상나무, 지리바꽃, 지리터리풀, 가시오갈피, 뻐꾹나리, 천마 등 1522종이 있으며 동물자원으로 반달가슴곰, 하늘다람쥐, 수달, 담비 등 5528종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지리산의 식물이야기(참나무 육형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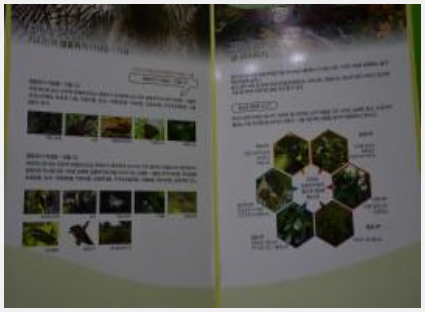
진짜나무라고 불리는 나무 참나무는 실제로 없으며, 참나무류라고 불러야 정확한 이름입니다. 참나무류 집안의 식구들은 크게 6가지로 나눠지는데 졸참, 상수리, 굴참나무, 떡갈나무, 갈참나무, 신갈나무가 있습니다.

졸참나무는 도토리류 중 크기가 작아서 졸참나무, 임금님의 수라상위에 올랐다고하여 상수리, 두꺼운 코르크질이 발달하여 굴참, 떡을 싸서 먹었다고 하여 떡갈, 늦가을까지 잎이 떨어지지 않고 남아 있어 가을 참나무라고 하여 갈참, 신발에 잎을 깔아서 신었다고 신갈나무라고 이름 불려왔습니다.

참나무류의 열매인 도토리류는 신석기시대부터 귀한 식량자원으로 활용되어왔고 의식주를 비롯한 다양한 문학작품과 생활 속에 등장하여 사람들에게 많은 관심과 사랑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또한, 반달가슴곰과 하늘다람쥐, 어치, 사슴벌레, 말벌 등 많은 야생동·식물의 먹이와 보금자리를 제공해 줌과 동시에 자신의 DNA를 남기기 위한 영토 확장의 꿈을 꾸며 지리산을 지켜나가는 생명의 나무입니다. 그리고 한

그루의 참나무류가 스러지며 남기는 잔재들은 다시 숲으로 환원되어 풍요롭고 건강한 숲의 생태계를 만들어 주는 고마운 에너지로 작용합니다.



지리산의 야생동물 이야기

야생동물이 살고 있는 국립공원의 가치를 돈으로 계산했을 때 103조 4000억원(2013년도기준) 정도를 갖고 있는데 생물종의 가치는 41%, 멸종위기종의 가치는 65%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야생동물은 생물적 존재로서만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미술, 건축, 음악 등 예술작품에 영감을 주기도 합니다. 또한 경제적 사회적 가치 및 심미적 가치 교육 과학적 가치 등을 가지고 있으며 무엇보다 자연생태계의 질서와 균형을 이끌어가는 주요인자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요즘 인간의 이기적인 욕심과 무 배려가 만들어낸 환경오염으로 인해 우리들의 생존까지 위협당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멸종은 일어나서는 안되며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에게도 좀 더 나은 자연환경을 물려주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반응확인)
예, 주변에 있는 자연환경 및 야생동물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있는 탐방자세가 필요합니다.

지리산의 깃대종 반달가슴곰과 히어리 이야기

지리산국립공원을 대표하는 야생동물 중 가장 먼저 생각나는 동물로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 반달가슴곰은 지리산의 깃대종이자 멸종위기종. 깃대종이란 생태계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의 종중에 그 지역의 생태계를 대표하는 중요한 종(동·식물)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생물종을 의미합니다. 그 지역의 생태계를 회복하는 개척자라는 이미지를 깃발의 의미로 깃대라고 하였습니다. 지리산의 깃대종으로 지정된 야생동물은 반달가슴곰 식물은 히어리입니다.

반달가슴곰은 천연기념물 제329호이자 멸종위기 야생동물 I 종으로 멸종위기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의 종이 사라지면 생물다양성에 많은 영향

을 미치는데 이에 국립공원과 환경부에서는 멸종을 막고 지리산의 건강성을 지켜나가기 위해 2000년도부터 반달가슴곰의 개체수를 증식 복원하는 노력을 기해왔고, 2020년 현재 약 60여 마리의 반달가슴곰이 성공적으로 증식되어 복원을 향해 나가고 있으며 현재 지리산의 곳곳을 누비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반달가슴곰의 생태적인 특성이 몇 가지 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겨울잠을 자는데 외부의 위협이 없는 한은 이듬해 봄까지 잠을 자며, 자는 동안은 전혀 먹지 않습니다. 또한, 1~2의 새끼를 낳는데 어미의 영양상태가 좋지 않으면 수정이 되어도 새끼를 낳지 않습니다. 수명은 보통 자연 상태에서 15~20년을 삽니다. 그리고 큰 덩치에 맞지 않게 좁은 굴속을 자유자재로 오가는데, 어깨뼈가 탈골되는 신비로운 반달곰의 몸 구조가 이를 가능하게 합니다. 또한, 날카롭게 잘 발달된 발톱은 나무를 잘 기어오를 수 있어 높은 나무에 있는 열매를 쉽게 구할 수 있게 하여 생존에 유리합니다.

반달가슴곰은 먹이원이 풍부한 지리산을 돌아다니며 도토리나 계절별 식물의 열매를 먹는데 하루에 30~40㎞를 돌아다닐 만큼 활동반경이 큽니다.

지리산에서 반달가슴곰은 어떤 역할을 하는 동물일까요? 숲 속의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먹이활동을 하며 똥을 이곳저곳에 싸는데 이때 똥 속에 있는 종자(도토리)가 또 다른 나무가 되어 숲을 이루고, 나뭇가지치기 및 상사리 만들기 활동을 통해 숲의 통기성과 생물다양성 발현에 많은 도움을 줍니다.
특히 가을철에는 도토리나 산밤 등은 주요 열량을 공급할 수 있는 먹이원인데, 지리산을 찾는 탐방객들의 호기심과 욕심이 반달가슴곰과 여러 야생동물을 굶주리게 하여 겨울나기를 어렵게도 합니다.

먹이사슬의 최상위단계에 있는 우산종이자 생태계에서 중요역할을 하는 반달가슴곰을 복원한다는 것은 지리산 자연생태계의 건강성을 유지와 증진은 물론 백두대간을 주축으로 하는 우리나라 자연생태계의 안정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책임 있는 탐방자세는 지리산을 지키는 큰 힘이 되며 반달가슴곰의 성공적인 복원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히어리는 조록나무과 집안의 식물로 생강나무와 같이 봄을 알리는 꽃으로 천은사일대와 861번 지방도 산록 등지에서 발견됩니다. 이름 때문에 외래종으로 오해를 받기도 하지만 우리나라 고유의 나무입니다. 주렁주렁 달린 노란 꽃송이가 수줍은 듯이 아래를 향해 피는데 그 모습이 너무도 인상적입니다.

「조선삼림식물도설_1942」에서 조선납판화라고 하였는데 납판화는 판화, 곧 꽃잎의 질감이 벌집을 만들기 위해 벌이 분비하는 노란 빛깔의 물질인 밀납과 비슷한 데서 유래한 것입니다. 광복 후 정태현의 「한국식물도감_하권 초본부, 1956」에서는 이 나무를 히어리라고 명명하였습니다. 북한에서는 납판나무라 하며 우리나라에서는 송광꽃나무, 시오리나무, 각설대나무라고도 부릅니다.

수영선수 수달이야기_족제비과 천연기념물330호, 멸종위기야생동물 제1급

하천 생태계의 지표종이라 불릴 만큼 물이 깨끗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장난꾸러기 수달은 박태환보다 더 뛰어난 수영선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족제비과의 동물 중 오소리 다음으로 장난이 심한 동물입니다. 잠자리를 특이하게 물가에 있는 영구적인 굴 1을 사용하며 야행성동물로 물고기, 개구리, 가재, 게, 쥐, 토끼까지도 잡아먹습니다. 육지를 포함한 수컷의 활동영역은 직선거리로 약15km이고 암컷은 7km입니다.

1~2월에 짝짓기를 하며 임신기간은 60여일 정도이며 2~3마리 정도의 새끼를 낳습니다. 꼬리는 방향타 역할을 하며 앞발에는 물갈퀴가 발달하여 수영을 잘 할 수 있습니다. 한때는 수달피를 얻기 위해 사냥꾼들에게 표적이 되어 멸종위기에 처했었지만 수달보호의 노력으로 인해 섬진강과 지리산국립공원 내에 있는 천은저수지 일대가 수달보호지역으로 지정보호 관리되고 있습니다. 특히 천은사상생의길 보듬길 저수지에는 수달에코스테이션이 조성되어 지속적인 수달의 보호 관리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하늘다람쥐_다람쥐과 천연기념물328호, 멸종위기종2급

산림생태계의 지표종 역할을 하는 하늘다람쥐는 전 세계적으로 오래된 숲이 줄어들면서 개체군이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우리나라는 하늘다람쥐 분포의 남방한계에 해당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사는 하늘다람쥐는 생태학적인 가치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날개가 없어 자유자재로 비상은 하지 못하지만, 높은 나뭇가지에 올라가 활공하는 것은 하늘다람쥐를 나무 위로의 서식공간을 확보하게 했고 이것은 이들 종족을 유지 시켜 나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앞발과 뒷발까지 연결된 비막을 활용하여 기본적으로 20~30m, 멀게는 100m까지 이동하며 높은 곳에서 이동해야 멀리 꼬리와 몸을 수직으로 일으켜 브레이크를 걸며 멈춥니다. 날 때는 사지를 펴고 몸을 평편하게 몸의 표면적을 키워 공기의 저항을 받는데 공중에서 균형을 잡을 때 방향을 잡을 때 꼬리를 사용합니다. 주로 야행성 동물로 몸색깔이 나무껍질 색과 비슷하여 천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환경적인 적응을 시도했습니

다.

식물의 새싹, 소량의 곤충, 열매종자 등을 먹으며 주로 가을에 충분한 먹이활동을 하여 체지방의 양을 15~20%까지 올려서 겨울잠을 자지 않습니다. 야생의 상태에서는 14년까지도 생존이 가능한 동물입니다. 이 지역 특이 탐방안내소와 탐방원 화엄사 등에서는 비교적 많은 개체가 서식하고 있습니다.

멧토끼

세계적으로 54종이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산토끼로 많이 알려진 멧토끼와 집토끼(굴토끼)로 2종이 있습니다. 그러나 굴토끼는 유럽 및 북아프리가 원산지로 가축으로 도입되어 우리나라 고유종은 멧토끼 한 종뿐입니다. 나무와 풀이 무성한 곳의 움푹 파인 땅에 새끼를 낳으며 새끼는 태어날 땜부터 이미 털이 있고 눈을 뜬 상태로 태어나자마자 활동이 가능합니다.

멧토끼는 대부분 해발 500m하의 야산에 살기만 1000m 이상 되는 노고단과 같은 곳에 살기도 합니다. 번식기를 제외하고는 단독생활을 하며 천척으로는 호랑이, 늑대, 곰, 여우, 너구리 삵 등, 올빼미, 수리부청이 등이 있습니다.

멧토끼의 예민한 긴 귀와 빨리 달릴 수 있는 뒷다리는 살아남기 위해 DNA에 남겨진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긴 귀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서 다가오는 위험을 쉽게 탐지하는 기능과 혈액의 순환양을 조절하여 열의 흡수나 발산을 촉진하는 기능을 하며 강한 뒷다리는 천적으로부터 도망갈 때 잘 뛸 수 있게 합니다. 또한 윗입술이 Y자로 찢어지고 쥐와 같이 앞니가 계속 자라기 때문에 나무의 목질부분을 갉아 이의크기를 조절합니다.

멧토끼 먹이를 맹장에서 발효시키는 독특한 소화기관을 가지고 있는 맹장발효동물이라고도 합니다. (식물의 잎과 가는 가지 , 나무껍질 등을 먹으면 위와 소장에서 일차로 영양흡수하고 맹장에서는 발효에 적합지 않은 큰 식물입자를 선별하여 딱딱한 변으로 배설시키며 작은 식물입자는 맹장 안으로 다시 돌아가 미생물에 의해 발효 된 뒤 영양가 높은 부드러운 변으로 나오는데 이것을 다시 먹어 영양분 섭취 효율을 높입니다. 암컷을 차지하기 위해 수컷은 권투를 하는 것처럼 앞발을 들고 싸움을 하며 때로는 뒷다리로 상대편을 차기도 합니다.

싸움에서 이긴 한 마리의 수컷은 여러 마리의 암컷과 짝짓기를 하는데 주로 밤에 이루어집니다. 봄~가을까지 3~4회 계속되는 다산의 왕입니다. 임

신기간은 42일~47일, 1~4마리의 새끼를 낳는다. 수유기간은 1개월 정도이며 1달 후부터는 새끼는 초본류를 섭식하기 시작하며 어미와 헤어지며, 8~10개월 만에 성숙해져 다음해 봄이면 바로 번식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번식률이 높은 반면 천적이 많아 사망률 또한 높아져서 자연생태계의 균형이 유지됩니다. 수명은 약5년 정도를 살 수 있습니다.

청딱따구리

숲속의 나무의사로 불리는 딱따구리류는 나무에서 살아가는 곤충을 주요 먹이로 하는 새입니다. 나무에 둥지를 마련을 하는데 처음에는 구멍을 뚫어 자신의 몸만 드나들 정도의 크기의 입구를 만든 후 아래쪽으로 파내려가 둥지를 짓는 습성이 있습니다. 이들 둥지는 일반 새들과 달리 폭우나 비바람 눈보라를 피할 수 있습니다. 추운 날에는 따뜻하고 더운 날에는 선선한 천연의 요새로 이 둥지를 욕심내는 동물들이 많답니다.

여기 있는 청딱따구리는 딱따구리 집안에 속하는 새로 비교적 크기가 큰 축에 들어갑니다. 까막딱따구리가 가장 크며 다음으로 청딱따구리, 큰오색딱따구리, 오색딱따구리 순이며 쇠딱따구리가 가장 작습니다.

청딱따구리라는 이름은 몸빛이 푸른색이 아닌데 녹색을 푸르다고 한데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청딱따구리의 영어명은 머리가 회색인 딱따구리라는 뜻의 ‘gray-headed woodpecker’입니다. 수컷과 암컷을 구분하는 방법은 머리에 붉은 털이 돋아있으면 수컷이고, 붉은 털이 없으면 암컷입니다.

청딱따구리는 어린 새끼를 키울 때 부모 새들이 먹이를 낱개로 잡아오는 것이 아니라 많이 먹고 와서 토해준다는 점입니다. 먹이는 주로 개미의 알과 개미 애벌레인데 먹이가 너무 작기도 하고 에너지도 절약하기 위한 방법으로 한 번에 가장 많이 먹이를 날라야 하는데 뱃속에 먹이를 가득 채워오는 것을 선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뱃속에 담겨진 먹이가 소화효소와 함께 녹여져 어린 새의 영양공급의 극대화효과를 꾀했습니다. 또한 둥지를 자주 드나들게 된다면 몸집이 커서 천적에게 둥지를 노출시킬 수 있는 단점을 보완책이기도 합니다.(크기가 작은 딱따구리류가 10분에 한번 분주하게 드나들어야 하는 반면 청딱따구리는 하루에 10번 내외로 먹이를 운반함)

그런데 어린 새가 많이 자라 먹이를 받기 위해 둥지 밖으로 고개를 내밀기 시작할 때 문제가 생기는데 먹이를 토해내는 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부모 새들을 마구 쪼아서 부모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

아에 충실을 기하는 청딱따구리의 모습은 우리 사람들의 모습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리산둘레길 이야기

지리산 등반이 산위로 올라가는 것이라면 지리산의 또 다른 묘미인 둘레를 걸어보는 길을 알아보겠습니다. 지리산둘레길은 지리산 둘레의 옛길과 고갯길, 숲길, 강변길, 논길, 마을길 등을 연결하는 길로 자연과 마을, 역사와 문화의 의미를 다시 찾아내 잇고 보듬는 길입니다.

지리산 둘레 3개도, 5개 시군과 16개 읍면 80여개 마을을 잇는 300여 km(22코스)로 장거리의 걷는 길입니다. 그중 구례에는 편백나무 숲길, 예술인마을, 서시천둑방길, 섬진강 둑방길 등 포함하여 지리산과 섬진강, 그리고 전통마을과 넓은 들판을 바라보면서 걸을 수 있는 7개 구간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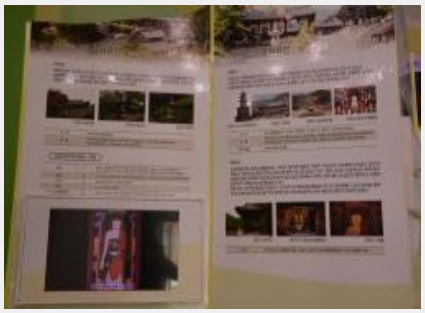
지리산의 문화자원

문화재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문화와 정신에 중요한 밑거름이 되는 것으로 옛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 문화를 볼 수 있게 하는 소중한 매개체입니다. 지리산 권에는 국보 9점과 보물 33점 등 다양한 문화재가 보호 관리되고 있는데 이들의 대부분은 사찰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연기조사가 창건한 천년고찰 화엄사와 이광사의 멋진 글씨를 볼 수 있는 천은사 그리고 범패음악의 효시인 쌍계사는 지리산의 3대 사찰로 불리며, 지리산자락마다에는 많은 산사와 암자들이 자리하고 있어 고즈넉함과 머물다 갈 수 있는 여유를 가져 보기 좋은 곳이기도 합니다.

화엄사경내 탐방 후에는 음이온과 피톤치드가 가득한 화엄숲길 탐방이 가능하여 자연과 문화의 향기를 동시에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천은사는 주변에 천은사와 그 둘레를 잇는 상생의 길이 조성되어 있어 느림의 여유와 산사의 고즈넉함을 동시에 느껴볼 수 있습니다.

연곡사는 조선 영조임금 때 율목봉산으로 지정되어 관리된 사찰로 경내에 조형미가 빼어난 동승탑과 북승탑 등 다양한 석조문화재의 향기를 체험할 수 있어 탐방의 묘미가 있는 곳입니다.





기획전시실_다시 자연으로(생태계복원이야기)

이곳 기획전시실의 전시주제는 복원이며 노고단정상부와 심원마을의 생태계복원을 다루고 있습니다. 복원의 사전적 의미는 망가지거나 훼손되었던 어떤 것을 원래의 상태로 되돌리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생태복원이란 자연적이거나 인위적 간섭으로 인해 훼손된 중요한 야생 동·식물의 서식처나 생물종을 훼손 이전 상태나 이전과 유사한 상태로 되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로부터 민족의 영산이라 불려왔을 만큼 자연생태계의 아름다움과 건강성을 간직하고 있던 지리산국립공원은 누구나 한번쯤 와보고 싶어 했던 곳입니다. 생명의 산이자 삶의 터전이 되었던 곳이었기에 많은 역사적 사건과 격변의 시간을 겪으며 생채기와 훼손의 아픔을 품으며 당당한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훼손의 요인을 꼽아보자면 인위적 요인과 자연적인 요인을 들 수 있습니다. 탐방객의 과도한 이용으로 인한 탐방로 노면유실과 노폭확대, 샛길발생 및 산정상과 대피소 주변의 야영으로 인한 나대지 발생 등의 인위적 원인이며, 자연적 요인으로는 고산지대 특유의 이상기후에 의한 자연훼손, 집중호우에 의한 탐방로 세굴 및 토사유실로 인한 지피식물의 훼손, 수목뿌리 노출 등이 있습니다.

노고단정상부 복원이야기

노고단정상부 일대는 약30만평에 펼쳐진 아고산생태계의 전형을 보여주는 곳입니다. 한번 훼손되면 그 피해의 정도가 크며 복원하는데도 많은 어려움과 시간이 소요됩니다. 특히 노고단은 우리나라 국립공원 최초 생태복원 사

례지이며 특별보호지역으로 의미가 큰 곳입니다. 해발 1507m에 자리하여 천왕봉, 반야봉과 함께 지리산의 3대 주요 봉우리로 알려져 있습니다.

본래 이름은 길상봉으로 지리산 산신을 위해 제사를 지냈던 제단이 남았다고 지금은 노고단(老姑壇)이라 불리고 있습니다.

지리산10경중 하나인 노고운해가 유명하며, 탁 트인 조망성은 연이은 산봉우리와 유려한 능선을 한꺼번에 감상할 수 있게 합니다. 또한, 봄, 여름, 가을 고지대의 혹독한 환경 속에서 화려하고 진한 색깔의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야생화를 만날 수 있는 재미를 더해 줍니다.

그러나, 한때 사람으로 인해 상처를 받았고 지금은 치유과정 중에 있습니다. 일제강점기(1910~1940)와 한국전쟁 그리고 그 후 군사시설이 설치, 이기적이고 무분별한 탐방자세와 그릇된 보신문화, 열악한 자연환경은 훼손을 가속화시켰고 결국 풀 한포기 나무 한그루 살 수 없는 맨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국립공원공단과 환경부에서는 1991년부터 10년의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 나대지화 된 상처투성이의 노고단을 복원하는 작업을 진행하였고 그 건강성과 아름다움을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복원 21주년이 지난 지금도 노고단은 아직 생태적인 복원 중에 있습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노고단정상부일대의 자연보호와 안전을 위해 연중 노고단정상탐방예약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반드시 예약(인터넷, 현장 키오스크)해야 하며, 1일 탐방인원은 1920명, 1인이 10명까지 예약가능하며 이용시간은 오전05시~오후16시까지입니다.

노고단의 아름다움과 건강성을 지켜나가기 위한 약속 하나, 꼭 노고단정상탐방을 위한 약속 지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table>
<tr>
<td>
</td>
<td></td>
</tr>
</table>

심원마을 이주와 생태복원

심원마을 이름유래는 깊은 산 속에 자리하고 있어 심원이라 불리게 되었고 마을은 2015년을 기하여 역사 속으로 사라졌고, 지금은 핵심 생태계 보호지역으로 복원되어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원래 심원 마을은 만복대와 반야봉을 잇는 심원계곡의 약15㎢의 핵심보호지역에 자리하여 20가구 54동의 주민들의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1987년 861번 지방도로가 개통된 후 해발750미터에 자리한 취락 중심의 심원마을은 청정오지의 아름다움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증가에 따라 숙박 및 음심점 등의 상업시설지로 개발되면서 지리산의 심층부가 훼손되었고 각종 환경오염에 노출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야생 동·식물의 서식지와 자연생태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됨에 따라 심원마을 주민들과의 설득과 동의를 통해 2013년부터 2017년 11월 10일 마을주민의 이전과 함께 자연생태복원을 완료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비211억원)*

심원마을 이주사업은 지리산국립공원 핵심지역으로서의 기능과 가치의 회복을 통해 생태복지를 실현하여 이렇게 한 개의 마을을 이주한다는 것은 많은 어려움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산과 시간 그리고 서로에 대한 이해를 구하는 어려운 일입니다.

최근의 심원마을은 사람의 흔적은 사라지고 대신에 고라니, 담비, 반달가슴곰 등 많은 야생동물들이 자유롭게 다니고 있는 모습이 모니터링 되고 있습니다. 사람의 자리가 다시 자연의 자리로 자연스럽고 차근차근 변화되고 있습니다. 멀리에서 바라보면 듬성듬성하게 보이지만 얼마 지나지 않으면 빠르게 무성한 숲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날이 오리라 믿어 봅니다.





퀴즈풀이 및 내용피드백

저와 함께 탐방안내소를 쭉 둘러 보셨습니다. 여러분께서 너무도 열심히 참여해 주셔서 “나는야, 지리산퀴즈 왕” 퀴즈를 몇 문제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추면 선물이 준비되어 있으니 잘 듣고 맞춰 보세요. 참여방식을

문제를 내면 바로 정답이라고 외치며 손을 들어 주면 됩니다. 제가 진행했던 내용에서 나오는 문제이니 누구나 쉽게 맞힐 수 있을 겁니다. 준비됐나요?

(진행자는 준비한 문제 7문제를 내어 정답을 맞추신 참여자에게 선물을 증정한다.)

지리산은 백두대간의 남쪽 끝자락에서 솟아올라 다양한 생명들을 품고 있는 생명의 보금자리이자 자연생태계의 아름다움과 건강성을 고루 갖고 있는 남한최대 면적의 국립공원 1호입니다. 지리산 산신인 노고할매의 제단터인 노고단과 다양한 자연자원들의 어울림과 위로가 있는 곳입니다.

지리산은 그간의 무분별한 훼손의 시간을 뒤로하고 새로운 생명을 다시 피워 올리고 있습니다. 국립공원에서는 공원자원의 보호와 안전하고 즐거운 탐방을 위해 몇가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절기와 동절기에 따른 입산시간지정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주산행을 하시려면 노고단에서 출발시간은 하절기에는 12시 이전에 동절기에는 11시에 통과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시설물인 대피소와 야영장 그리고 특별보호지역인 노고단정상탐방을 하시려면 반드시 이용일 전에 국립공원공단 통합예약시스템에서 예약을 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공원환경의 보호와 청결을 위해 자기가 가져온 쓰레기와 남이 버린 쓰레기를 모아서 되가져갈 경우 포인트로 전환해 주는 그린포인트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1그램당 2포인트로 공원시설물 이용이나 그린포인트 상품쿠폰을 이용하시면 1석2조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지금 지리산은 상처의 생채기를 감추고 회생의 시간을 향해 부지런히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지리산에 대해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프로그램 닫기

지금까지 저와 함께 지리산의 다양한 면모들을 알아봤는데 어떠신가요? 지리산국립공원은 자연과 사람이 어울려서 살아가는 공간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어리석은 사람도 머물면 지혜로운 사람으로 변한다는 이름 뜻이 있는 지리산에서 저하고 함께 한 하루 어떠셨나요? 지리산 계속 사랑과 관심과 사랑으로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리산10경으로 산을 멋지게 표현하고 있는 시 “행여 지리산에 오시려거든_이원규”님의 시로 이 시간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행여 지리산에 오시려거든』

-이 원 규

행여 지리산에 오시려거든
천왕봉 일출을 보러 오시라
삼대째 내리 적선한 사람만 볼 수 있으니
아무나 오시지 마시고
노고단 구름바다에 빠지려면
원추리 꽃무리에 흑심을 품지 않는
이슬의 눈으로 오시라

행여 반야봉 저녁노을을 품으려면
여인의 둔부를 스치는 유장한 바람으로 오고
피아골의 단풍을 만나려면
먼저 온 몸이 달아오른 절정으로 오시라

굳이 지리산에 오시려거든 불일폭포의 물 방망이를 맞으러
벌 받은 아이처럼 등짝 시퍼렇게 오고
벽소령의 눈 시린 달빛을 받으려면
뼈마저 부스러지는 회한으로 오시라

그래도 지리산에 오시려거든
세석평전의 철쭉꽃 길을 따라
온몸 불사르는 혁명의 이름으로 오고
최후의 처녀림 칠선계곡에는
아무 죄도 없는 나무꾼으로만 오시라

진실로 진실로 지리산에 오시려거든
섬진강 푸른 산 그림자 속으로

백사장의 모래알처럼 겸허하게 오고

연화봉의 벼랑과 고사목을 보려면
툭하면 자살을 꿈꾸는 이만 반성하러 오시라

그러나 굳이 지리산에 오고 싶다면
언제 어느 곳이든 아무렇게나 오시라

그대는 나날이 변덕스럽지만
지리산은 변하면서도 언제나 첫 마음이니
행여 견딜만하다면 제발 오지 마시라

감사합니다.



끝.

#첨부 2. 현황사진



